

# 포스코건설\_여의도 파크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다

## 사업 개요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면적** : 약 46,465㎡(14,056평)
- **사업 특성** : 이탈리아 출신 리처드 로저스 경이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담아낸 디자인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포스코 건설의 스마트컨스트럭션 적용
- **주안점** : 옛 여의도 통일 주차장 부지 4만 6,465㎡에 조성된 파크원은 지하 7층~지상 69층~지상 53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2개 동과 8층 규모의 백화점 1개동, 31층 규모 호텔 1개 동으로 구성

## 사업 전체 설명(마스터플랜 등)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중심에 탄생한 파크원은 리처드 로저스경에 의해 설계됐으며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획기적인 도시경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속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 포스코그룹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고급철강재 적용, 철골공사 엔지니어링 노하우, 스마트컨스트럭션 기술 도입을 통해 포스코 건설의 초고층/대규모복합개발사업 핵심수행 역량과 기술이 집결된 사업이다.

69층, 53층 높이의 타워들은 국내에서 초고층에 처음 적용된 메가 브레이스 시스템으로 아웃리거가 없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구조로 시공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BIM 및 헨 측량등의 첨단 기술이 활용됐다.

한국 전통의 방패연을 형사화 시킨 Kite 구조물은 8마리의 학이 방패연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Crane이 구조적인 지지역할까지 하여 구조미와 조형미를 동시에 구현한 독특한 구조물이다.

## 세부 설명자료

- **주요 내용** : 국내 3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서울 최대규모 백화점인 '더현대서울'과 국내 최초 페어몬트 호텔 등이 입점해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물 가장자리에 8개의 Mega Column(대형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사이를 Mega Brace(대형 버팀대)로 서로 연결해 중심을 받치는 Mega Frame 구조시스템을 파크원에 적용했다.
- **기대효과** : 최첨단 시설의 오피스타워, 페어몬트 호텔, 더현대서울 백화점,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그리고 풍부한 녹지공간이 조성됐다. 단지 중심에 솟아오르는 69층과 53층 규모의 두 동의 오피스타워는 화려한 외관과 모던한 감각이 조화된 건축디자인의 백미가 될 것이다.
- 아울러 그동안 여의도는 구도심의 한계로 종합적인 발전이 어려웠지만 최근 2030 서울플랜의 국제금융 중심지 육성 계획, 도심형 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더불어 GTX 등 교통편신설 계획 등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여의도에 파크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 사업 주요사진



## 사업 주요사진



## 사업 주요사진



## 대표적 사진/도면

